

#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6월 23일  
제2006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8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마르 4,39-40)



〈갈릴래아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그리스도〉, 렘브란트

## 연중 제12주일 (나해)

제 1 독 서 욘 38,1.8-11 |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화 답 송 시편 107(106)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 서 2코린 5,14-17 |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 음 마르 4,35-41 |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35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37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 묵상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밤이 되었기 때문에,  
 풍랑이 일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입니다.  
 거칠게 풍랑이 이는 밤이어도,  
 ●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을 제대로 안다면  
 결코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 †복음 묵상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에는 언제나 불확실함이 있으며, 만일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사에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려는 일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시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느님을 확실히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 어떤 사람이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표지입니다”(“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안토니오 스파다로와의 대담).

인간은 하느님의 신비를 완전히 알 수 없기에, 너무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자 노력할 뿐이고, 그 노력으로 숨겨진 의미를 아주 조금씩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순과 고통, 예기하지 못한 사고, 소중한 이와 헤어짐 등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붙일 수야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찾는 여정을 걸어갈 뿐입니다.

제1독서의 옴은 하느님의 뜻을 찾아 모험에 나섰습니다. 그의 눈으로는 무고한 의인의 고통, 아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불행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느님을 만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이 고통의 이유와 의미를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결국 하느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느님의 답변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크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크심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고통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인간 사고의 틀 안에 가두기보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불확실성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럴 때 알 수 없는 고통의 신비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최정훈 바오로 신부)

## 복음과 성화

##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 4,40)

사람들이 렘브란트의 성화에 매료되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성경에 비추어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성화를 보면 등장인물들의 마음이 보인다.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가 1633년에 그린 <갈릴래아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그리스도>를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보인다.

배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타고, 큰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다. 배의 상단에 있는 제자는 끊어진 밧줄을 다시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기둥에 모여 있는 네 명의 제자들은 파도를 이기려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배 중앙에 있는 제자는 바닥에 앉아 배로 들어온 물을 퍼내고 있다. 이들 여섯 명의 제자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대변해준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흠뻑 받으며 활동적인 색인 노란색과 밝은 색 옷을 입고 있다.

다른 두 명의 제자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관람객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붉은 옷을 입은 제자는 머리를 바다로 내밀어 구토를 하고 있고, 푸른 옷을 입은 제자는 관람객을 바라보며, “사는 게 왜 이렇게 골치 아프냐?”고 머리를 잡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머지 네 제자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고 그들의 옷 색깔은 어둡고 차분하다. 두 제자는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고, 두 제자는 스승을 흔들며 깨우며 애원하고 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이 사뭇 다르다. 한 사람은 어둠에 묻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두 손은 모았지만 여전히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있다. 다른 두 제자는 스승을 깨우며 지금의 처지를 예수님께 말한다. “스승님, 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의 표정에는 믿음보다는 원망이 가득하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겠다는 것보다는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의지만



<갈릴래아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그리스도>  
렘브란트

강하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얼마나 명쾌한 말씀인가?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것도 믿음이 약해서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모든 근심과 어려움도 사라지는데, 그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니 고난 앞에서 걱정부터 하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우리의 마음까지 고요해졌다. 그래서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빛이 비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도 아닌 어부가 노를 잡고 이 광경을 보고 있다. 그는 노를 젓지도 않는다. 그는 노를 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 그는 알았다. 풍랑을 이기는 힘은 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 알았다. 그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는 바람에 휘날리는 그의 하얀 수염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바라볼 것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며 말은 하지만 인생의 고난 앞에서 허둥대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복음말씀을 아무 감동 없이 죽은 문자로만 읽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고난 앞에서 허둥대고 말 것이다.

말씀의 씨앗이 지금은 어떤 씨앗보다 작게 보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안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풍랑 앞에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우리도 세상 풍파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을까? 영적 불면증은 믿음의 부족에서 온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1 요한회(50대 남녀 교우) 월례 회의**

• 일시 : 6월 23일(일) 오전 11:30 (B-1)

**2 울뜨레아 회합**

• 일시 : 6월 28일(금) 오후 8시 (B-1,2,3)

**3 루카회(60대 남녀 교우) 월례 회의**

• 일시 : 6월 30일(일) 오전 11:30 (B-2)

**4 유아세례**

• 일시 : 7월 6일(토) 오후 2시  
 • 7월 유아세례는 **첫째 주 토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5 2024년 교육부 성경학교 하계 워크숍**

• 일시 : 7월 7일(일) 오전 11:30분 - 오후 3시  
 • 대상 : 성경에 관심 있는 신자 환영  
 • 신청 : 교육부에 6월 30일(일)까지 신청 (\$20, 점심 제공)  
 • 문의 : 윤영미 로사리아 (703) 850-2968



**6 연중 영화 상영(교육부)**

• 일시 : 7월 12일(금) 오후 8시 (친교실)  
 • 영화 제목 : The Mission  
 • 18세기 남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인류애와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으로 당시 식민지 지배층과 예수회 선교사들의 갈등을 통해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7 주일학교 CCD Summer Camp**

• 일시 : 8월 9일(금) 오후 3시 - 8시, 8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 성당  
 • 대상 : 현재 K(유치부)부터 7학년까지  
 • 등록 기간 : 7월 28일(일)까지 하상관 입구, 교무실  
 • 문의 : 김 세바스티아 (703) 626-1370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본당 연령 단체 가입 나이 상향 조정**

• 30년 전의 나이 기준으로 만들어진 본당 연령 단체들의 가입 기준을 길어진 평균 수명과 현재의 나이 기준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5년씩 상향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바오로회 : 30 - 44세까지 • 베드로회 : 45 - 54세  
 • 요한회 : 55 - 64세 • 루카회 : 65 - 74세  
 • 하상회 : 75세부터 • 안나회 : 65세부터(현행 유지)  
 •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 기준이며 이미 단체에 가입된 분들은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공지**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의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자들은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는 어느 성당이든, 어떤 미사든 상관없습니다.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2024-2025년 예산안**

• 6월 30일부로 회계가 마감됩니다.  
 • 각 단체별로 결산과 예산안을 준비해 주세요.

**예비자에게 관심을!**

•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 예비자분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선포하며  
 • 예비자 교리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는 **주일 8시 30분에 하상관 110호**에서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추가로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2024 WorkCamp가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 버지니아 Frederick County에서 열립니다.  
 • WorkCamp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DRUMMER 모집**

• 주일학교 CCD Summer Camp 찬양팀에서 밴드 공연을 함께해 주실 Drummer를 찾습니다.  
 • 문의 : 김준모 요셉 (301) 461-7234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 알린턴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대사 조건은  
 ①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하고  
 ② 고해성사,  
 ③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④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본당 친교와 일치 의 장인 장터 한마당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구역원들과 봉사자들,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친교와 일치를 나누는 공동체이기를 청해봅니다.

**교중미사 예불봉헌**

<b>06/23 이번 주</b>	비엔나 2구역
<b>06/30 다음 주</b>	스프링필드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6월 16일 (연중 제11주일)

봉헌금	\$ 6,716.00
교무금	\$ 8,920.00
교무금(신용카드)	\$ 3,080.00
감사 헌금	\$ 800.00
2차 헌금	\$ 2,506.00
온라인 봉헌	\$ 1,280.00
합계	\$ 23,302.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6월 28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6월 30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별기획 미션 : [6부] '와서 쉬어라'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